

CBS 미션

CBS는 세상과 교회를 잇는 다리입니다

2018
09
제17호

Mission

특별모금방송,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가사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다

Contents

특집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싸이판 시즌 2>

Culture

영화선교, 극장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
한국교회 기록 유산을 위한 사역, 찬송가 전곡 녹음

2018 CBS 후원 특별모금방송, ‘주여! 나를 보내소서’



지난 6월 20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CBS 후원 특별모금방송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방송을 통해 64년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부흥회로 영광을 돌렸고, 방송을 보고 은혜를 받은 후원자들의 뜨거운 참여로 CBS에 대한 ‘사랑’을 큰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에는 동반자, 세계선교, 다음세움 섹션으로 나뉘어 총 3부작으로 방송되었습니다.

1부 <동반자 CBS>는 CBS를 통해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받아 사역에 힘을 얻은 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고,

2부 <세계선교 CBS>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적 최전방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삶과 CBS의 선교 사명을 다짐했으며,

3부 <다음세움 CBS>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신천지로부터 다음세대를 지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방송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모금방송은 ‘월 1만원 정기후원으로 CBS의 100만 방송선교사가 되어주세요’를 타이틀로 진행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선교사역에 공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CBS의 헌신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선교사로 동참하며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CBS를 사랑하는 마음을 후원이라는 동참으로 힘을 주신 방송선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CBS는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방송 선교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셋째 주에도 CBS 방송선교를 위한 특별모금방송이 진행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며 제작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슈바이처 김학철 장로

미세먼지 없는 청명한 하늘을 자랑하는 전라남도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는 80대 후반의 고령에도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며 남은 인생을 주께 봉사하는 CBS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흰 가운을 걸친 말끔한 셔츠 차림의 김학철 장로님은 CBS의 오랜 동역자입니다.

선교를 위해 후원을 지속해주신 장로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방송선교사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열은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주신 장로님은 먼 곳까지 어떻게 왔냐고 몇 차례 되물으시며 걱정하는 기색을 비추셨습니다. 직원들은 안부도 궁금하고 감사를 표하러 방문한 것인데 장로님은 못내 미안하고 신경 쓰이셨는지 오히려 직원들을 역까지 배웅하셨습니다.

CBS에는 김학철 장로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현재의 자리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방송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직원들도 방송선교사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벧전 4:11)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장로님!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라며 사랑하는 방송선교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기도합니다.



CBS 100만 방송선교사가 되어주세요!

선교후원계좌 예금주: (재)CBS
우리 212-001999-13-045
국민 802-25-0009-268
농협 358-17-000404

ARS 후원(한 통화 5천원)
060-808-5004
후원 문의(월 1만원 정기후원)
02-2650-7004

CBS가 14년간 개척해 온 나가사키 순교지 순례 유적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다



2005년부터 14년간 CBS가 개척해 온 일본의 나가사키 순례 유적지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확정되었다.

지난 7월 일본의 나가사키현의 기독교 박해지 및 취락군(크리스천들이 250년간 숨어 지내던 마을터)에 대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된 이후에, 나가사키, 오무라시, 히라도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연속적으로 CBS를 방문하여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동안 CBS가 일본선교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나가사키 순교 유적지 순례'를 통하여, 오히려 일본인들이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실 2007년부터 나가사키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잠정목록'에 포함된 이래, 그간 공식적인 등재를 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했던 2015년 등



재심사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유네스코 관계자는 '나가사키의 성당 등 기독교건축물은 유럽에 비하여 좀 약한 편이지만, 일본 나가사키가 지닌 250년간의 기독교박해의 스토리는 소중하고 독특한 문화유산'이라고 조언하면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나가사키현에서는 CBS가 그동안 추구하였던 '유형의 건축물보다는 무형의 순교역사와 신앙적 교훈'에 초점을 맞추어 등재를 재신청하였고, 드디어 2018년 7월 21일 유네스코는 나가사키의 취락군 11곳과 성당 1곳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발표한 것이다.

CBS는 2005년 울산에서 첫 배를 띄운 이래, 해마다 대장정 순례단으로, 또는 초대형 크루즈로 나가사키 땅을 지속적으로 두드렸다. 그간의 누적 방문 인원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나가사키 평화대장정'이 선정되어 NHK의 저녁뉴스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고, 2017년에는 사세보시의 요청으로 열린 '공무원을 위한 일본기독교역사 특강'에 10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를 두고 한 일본인 목사는 '훗날 일본 기독교사에 포함 될 만큼 놀라운 사건'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일본의 사회정서상 공무원이 기독교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 변화는 향후 일본선교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CBS는 나가사키 순교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발맞추어



오는 11월에 500여명의 기념투어를 기획하고 있다. 나가사키현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요청이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사세보시는 세계문화유산 관련 지역에 CBS방문단의 기념식수 부지를 마련할 정도로 환영 분위기이고, CBS와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미디어혁명에 발맞추어 우리 CBS는 저비용으로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일본 땅에서의 방송선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나가사키는 규슈지역 서북부해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일본 기독교가 최초로 태동하여 가장 번성한 지역이며, 박해가 진행되던 250년간이나 배교를 거부하고 천국을 소명하며 순교를 선택했던 30만 명이 나 되는 순교자의 피가 서린 곳이다.

CBS가 '동방의 산티아고'라고 명명한 나가사키 지역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일본선교에 대한 복음의 불길이 더욱 활활 타오르길 기대한다.

CBS 한일연합선교회를 소개합니다

CBS 한일연합선교회(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CBS의 동역기관으로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방송 콘텐츠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교회는 CBS에서 생산한 콘텐츠들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급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사역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차원에서 오디오부스를 설치하고 일본어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 중이다. 제작에는 일본선교에 경험이 있는 이상구 목사(벨엘교회)와 한승호 선교사(한일연합선교회)가 MC로 참여한다.

현재 제작중인 콘텐츠는 "구짱 호짱 마지까"라는 타이틀의 대담 형식이다. 마지(マジ)는 'まじめ(마지메)'라는 젊은이들 사이의 신조어(진심 또는 진지함이라는 뜻)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미 4회분까지 제작을 마쳤으며 5회분이 완성되면 유튜브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주로 찾는 동영상(動画) 사이트와 SNS를 활용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 주재민 제작감독은 "일본인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쓸만한 정보들을 어설픈 일본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들이 찾

아서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한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정해진 주제를 재미있게 구성하면서 각 주제에 걸맞은 음식을 먹기도 한다. 그 동안 카스테라, 지옥의 달걀, 덴뿌라(튀김), 네델란드와 오렌지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일본인들이 복음에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여 기독교가 결코 낯설거나 이질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 콘텐츠들은 오디오와 비디오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로 일본 비기독교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일본어 성경낭독, 행복편지 등을 제작 중이며, 크리스천 칼럼과 각종 이슈 및 트렌드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특히 나가사키 유적지 중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12개 지역들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소개할 예정으로 복음의 불모지 일본의 수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리는 CBS의 귀한 사역에 작게나마 동역하기를 소망한다.

(홈페이지: www.cbsjapan.tv)

CBS만이 기록할 수 있고 우리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교회의 위대한 유산! 3·1운동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쓰는 루터 로드'로 한국 교회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CBS가 또 하나의 작품을 선보인다. 100년 전 격동의 시기를 겪었던 북간도를 찾아 한국 기독교를 되돌아보는 기획이다. CBS TV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기독교 독립 운동가들을 추적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2부작 '북간도의 십자가'(연출 반태경 PD)를 제작한다.

다큐멘터리는 당시 인구의 1.5%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3·1운동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를 국내외의 학술기관의 다양한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3·1운동 이후 가장 큰 만세운동이었던 용정(龍井) 3·13 만세 운동과 이를 가능케 했던 북간도 기독교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CBS는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다시 쓰는 루터 로드)를 제작하고 있던 지난해 초부터 3·1운동 1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위해 관련 단체 및 학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획을 진행했다. 민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기독교 독립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낸다면, 사회적 신뢰와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교의 위대한 전통을 되살려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바람에서였다. 이런 배경에서 기획된 작품이 바로 '북간도의 십자가'다.

특히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역사와 실존을 연결하는 새로운 실험이 이번 다큐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제작진은 '3·1운동'이라는 역사적 뼈대 위에 두 남자의 스토리를 덧입힐 계획이다. 북간도 출신의 마지막 생존 인사 문동환 목



사와 젊은 역사학자 심용환 작가의 시선을 교차하며 북간도 항일 독립운동의 '스토리'를 추적하는 것이다. 병상에 누워 있는 문동환 목사가 회고하는 장소를 심용환이 직접 찾아간다. 그리고 심용환이 북간도 현지에서 느끼는 감동과 질문에 문동환 목사가 화답한다. 두 남자는 직접 만나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면서 각자의 3·1운동을 이야기한다. 시간과 장소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때론 심용환 작가가 문동환 목사가 되어 북간도를 거닐기도 하고, 때론 문동환 목사가 심용환 작가를 통해 3·1운동의 기독교적 의미를 전하는 순간들이 새로운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100년 전 3·1운동과 기독교 독립운동의 '역사'를 넘어 3·1운동과 북간도 기독교 독립 운동가들로부터 배워야 할 '오늘의 교훈'을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줄 작품! 역사적 과제 앞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던(북간도) 기독교 독립 운동가들의 재조명은 추락한 한국교회 공공성/신뢰도 회복의 단초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성서학당은 아는데, 성서학당 Basic은 뭘이당가?

TV제작국 박유진 PD (성서학당 Basic 연출)

성서학당은 CBS TV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2007년부터 무려 12년째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성경공부 프로그램'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각 권에 숨겨진 진리를 때로는 농밀하게 때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발견해,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깊고 진한 10년의 사랑을 바탕으로, 성서학당이 지난 6월부터 조금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성서학당 Basic>인데요, 10년째 탄탄하게 공부해 온 '고정 팬들' 외에도 그 '10년의 장벽'이 너무 높아 선뜻 입학하지 못하는 '신규 팬들'을 위한 새로운 기획입니다. "일단 숲을 보여드리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찰하느라 깊은 숲길에서 길을 잃을까봐 두려운 '초급자'들에게 '항공 지도'를 보여드리자"는 생각에서 시작한 셈입니다.

한겨울, 교회 종탑 위에 홀로 서다

최정권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성서학당 Basic 강사)

성서학당 Basic을 맡아서 처음 촬영하던 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방송 카메라가 여기저기서 돌아가고, 천장을 가득 메운 환한 조명 탓에 어디 한군데 숨을 곳이 없어보였습니다.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진이 빠졌다'는 말이 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성경, 살아있는 말씀>을 첫 강의로 시작해 <부활, 마지막 드라마>까지, 18번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머리만 대면 자던 제가 한 겨울 찬바람이 몰아치는 교회 종탑위에 혼자 서있는 꿈도 꾸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 낼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사이에서 매주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여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녹화를 진행하면서 얻은 감격과 은혜가 깊은 감사 기도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시청률이 좋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며 벅찬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신앙의 근원> 시리즈는 처음부터 그 방향성이 분명했습니다. 목양실까지 찾아와 성서학당 Basic의 방향성을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쉽게!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피디의 음성이 가는 길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신 두 선생님이 바로 성서대학교교회 최정권 목사님(신앙의 근원 시리즈)과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지명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입니다. 최정권 목사님의 '신앙의 근원' 시리즈는 <기도> <성경> <예배> <천국> <재림>처럼 기독교의 핵심 키워드들을 성경에 기반해 풀어내는 기초강의입니다. 그야말로 베이직 코스이지요. 한기채 목사님의 '지명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을 바탕으로 지리적, 인문학적, 성경적 지식으로 콘텐츠를 이해하는 입체적인 강의입니다.

버라이어티쇼 같다고 하면 좀 이상할까요? 다행히 두 강의 모두 시청자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연착륙'하는 기초강의들을 통해 더 많은 새로운 시청자들이 성경 공부의 재미 속으로 풍덩 빠지길 기대해봅니다.



니다. 그러나 쉽다고 내용의 깊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쉽지만 깊이 있는 강의!" 언뜻 보면 모순되지만 성서학당 Basic의 시청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요 근원이 되는 키워드들을 다룬 이 강의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크리스천들에게 탄탄한 정감다리 한 조각이 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교회나 해외 이민 교회 성도들에게도 힘과 도움이 되는 강의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한 강의 한 강의 쓰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CBS TV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싸이판 시즌2> 방영 사회 건강성 해치는 이단·사이비집단 문제 연속 진단

선교TV본부 신천지특별취재단장 박옥배



CBS TV가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싸이판>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이단 사이비 집단 문제를 진단하고, 이단 사이비 집단을 분별하는 정보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역할에 나섰다. 2017년 2월 팟캐스트 방송으로 시작한 '변상욱의 싸이판-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이 시즌 1을 종료한 지 1년 만에 2018년 5월 시즌2로 다시 돌아와 CBS TV는 물론 팟캐스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단·사이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다양한 사이비 종교들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더 널리 알렸다.

<변상욱의 싸이판 시즌2> 시청률 1~2위, 시청자들의 큰 반향

시청자들의 반향은 컸다. 실제로 <변상욱의 싸이판 시즌2>는 시청률 조사 결과, CBS TV 프로그램 중 꾸준히 1~2위에 기록할 만큼 시청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첫 주제인 'JMS#미투' 편에서는 여신도 강간 등의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살고 지난 2월 출소한 JMS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사이비 이단 집단 내에 판치고 있는 성추문과 스캔들, 성폭행의 어두운 흑역사를 다루었다. 또 '사랑과 전쟁, 신천지' 편에서는 신천지 야고보지파 출신인 Y양이 출연해 신천지 교인이 연인관계이던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

년을 선고 받은 사건과 신천지가 이성교제 지침을 통해 이성교제를 통제하는 사례 등을 고발했다. 이밖에도 가수 박진영의 구원과 연루설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편을 방송했다.

'귀신 쫓는 김기동의 흑역사' 편 방송 보류

이단의 방해로 방송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09억원 대 배임,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교회 내 개혁협의회 측 인사가 출연한 '귀신 쫓는 김기동의 흑



역사' 편은 성락교회 측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짐에 따라 현재 이의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 CBS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대로 '김기동' 편을 방송할 예정이다.

다음 세대 크리스천을 위한 새로운 시도

<변상욱의 싸이판>은 2017년 2월 3일 1편 '사이비 국정농단사건'을 시작으로 아이튠즈 팟캐스트와 레인보우 팟캐스트를 통해 누적 청취자 수 40만명(편당 2만 4천명)을 기록하는 큰 인기를 모았다. 시즌 1은 신천지를 포함한 한국사회 이단·사이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쉽고 편하게 젊은 층에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다음 세대 크리스천을 위한 CBS 콘텐츠의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적절하게 동영상 콘텐츠를 포함해 단순한 오디오 팟캐스트에서 벗어난 점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해 다양한 청취자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한 점이 새로운 접근이라는 평이다.

제9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 특별상 수상

특히, 젊은 세대들의 꿈과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이비 종교들의 포교 전략을 피해자들의 육성을 통해 사실적으로 고발하고, 심층 취재를 바탕으로 사이비 집단의 국정농단 사례를 폭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변상욱의 싸이판'이 제9회 한국기독교언론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집 다큐 8부작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재방영

한편 2015년 3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단성과 반사회성을 고발했던 특집 다큐 8부작 '관찰보고



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지난 4월 4일부터 26일까지 재방영됨으로써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도 했다. 특집 다큐 8부작 '관찰보고서-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신빠사)은 반사회적 이단 집단 신천지의 실체와 신천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등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관찰보고서 형식의 다큐멘터리다. 이번 재방영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소송 중이어서 재방송 등의 방송을 하지 못한 특집 다큐 8부작에 대해 정보보호 1건을 수정하고, 반론보호 8건은 재판집을 통해 삭제해 방송한 것이다.

CBS는 앞으로도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 <싸이판> 제작을 통해 이단·사이비 집단의 문제를 진단, 분석하고, CBS Joy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CBSJOY), '신빠사 홈페이지' (<http://antiscj.cbs.co.kr>) 등을 통해 이단·사이비 집단을 분별하는 정보를 대중적으로 알려 이단·사이비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단·사이비와 끝까지 싸움

연번	사건명	상대	판결		
			1심	항소	상고
1	박옥수 전관여우 관련 보도	박옥수	일부패소	1심판결취소 승소(확정)	
2	하나님의교회(안상홍) 이단·사이비 보도	하나님의교회(안상홍 증인회)	승소	일부패소	각상고 기각
3	신천지예수교회 신천지 OUT 보도	신천지예수교회교회 이만희	승소	승소	승소
4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소송	신천지예수교회교회 이만희 외 4	일부패소	일부패소	각상고 기각
5	신천지 교주 이만희 역대 국판 의혹 보도	신천지예수교회교회 이만희	승소	승소	승소
6	신천지, 호잔치 내세운 학교 내 포교활동 시도 무산 보도	신천지예수교회교회 이만희	일부패소	각항소 기각	CBS상고 기각
7	천부교 관련 보도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외 1명	승소	승소	승소
8	경주 토암산에서 1040구 시신 발견됐지만... "배후 실세 있다" 의혹 보도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외 1	진행중		
9	천부교 반론보도 청구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외 1	일부패소	진행중	
10	통일교 르포 보도관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진행중		

영화 선교, 극장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 〈신은 죽지 않았다3〉 그리고 〈바울〉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은 점점 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부서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당신을 조각하고 계시는 중이니까”라는 위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의 빛’으로 부름 받은 우리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선물했다.

이는 개봉 당일 다양성영화 1위, 8만 관객 돌파, 역대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 합산 관객 수 초과 흥행 달성, 수도권 70개 교회 이상 단체관람 진행, 롯데시네마의 이례적인 한 달 연장상영 결정 등 이전에 없었던 수치와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겨졌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보다 더욱,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을 통해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기록’이었다.

**“전 무교입니다. 기독교 영화지만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되었는데...
생각할만한 내용이 많아서 나름 의미 있는 영화였습니다.”**

네이버 영화 리뷰 scor****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1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며 〈신은 죽지 않았다 3〉 영화의 베스트 관람평으로 등록되어 있는 해당 리뷰는 이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무교’이지만 ‘생각할만한’ 영화였다고, ‘의미 있는’ 영화였다고 〈신은 죽지 않았다 3〉을 평하는 것만으로도 이 한 영혼의 마음에 한 알의 밀알이 심어졌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의 가장 큰 성공은 이것이다.

“한 영혼의 가슴에 새겨진 복음!”



혼탁한 세상 속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기독교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생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일, 이 일에 ‘영화’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있을까?

이제, 10월 CBS시네마는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 예수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한다. 〈신은 죽지 않았다 3〉을 통해 심겨진 작은 밀알들을 바울 사도가 전해준 강력한 복음이야기로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올 3월 북미에서 먼저 개봉하여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바울〉(Paul, the apostle of Christ)은 AD 67년, 네로황제의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로마의 크리스천, 그 가운데 특별히 투옥되어 사형을 기다리던 바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매일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한 것’이라 고백하는 바울,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지켰던 ‘복음’이 영화의 유일한 주제이자 결론이다.

CBS시네마는 올 가을, 바울서신서 13권을 아우르며 강력하게 전파되었던 복음이 영화 〈바울〉을 통해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 받은 여러분을 거쳐 전국 곳곳을 누비게 되길 기대한다.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가을이 되길 소망한다!

단체관람문의 : 02-2650-7942

2018.10월 대개봉

수입/배급 CBS

요절을 외우면 복이 통한다2

CBS의 성경암송프로젝트는 2016년 성경암송대회 ‘요절 복통’을 시작으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개국 427교회가 참여하여 아이들의 목소리로 성경전체를 녹음한 ‘성경암송 1189’가 봉헌되면서 그 정점을 찍었다.

2018년!

다음세대 암송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단위의 성경암송대회 요절복통2가 다시 한번 개최된다.

이번 성경암송대회 요절복통2는 ‘부모와 함께 세우는 다음세대’를 주제로 다음세대를 일으킬 원동력인 말씀을 부모와 함께 암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교회와 함께 다음세대 성장을 위해 주일학교마다 말씀암송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가정마다 말씀암송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유초등부/소년부/중고등부/부모와 함께하는 유초등부’ 등 각 참가 분야로 나뉘어 모집하는 이번 암송대회는 2018년 9월 예선을 시작으로 1차, 2차 예선을 거쳐 2018년 12월에 CBS공개홀에서 최종 본선을 열 계획이다.

다음세대뿐만 아니라 성경 암송을 통해 말씀 중심의 신앙 회복 운동이 전개되어 분열되고 혼란한 한국 교회의 일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가문의 : 02-2650-7874



CBS가 한국 교회에 주는 선물 ‘찬송가 전곡’ 녹음

- 한국 교회 기록 유산을 위한 문화 사역 -

CBS는 한국교회를 위한 문화 선교 사역의 일환으로 2006년 개정된 찬송가 645장 전곡 녹음을 시작한다. 단순한 음원 제작을 넘어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구들을 디지털로 반응하도록 현대적 기법으로 재녹음 할 계획이며 찬송가의 음악적 요소를 분리사용(연주용/감상용 등)할 수 있도록 가공 할 예정이다.

한국교계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새 찬송가 전곡 녹음은 한국교회의 기록 유산으로 남긴다는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역이다. 현재 방송에서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음원은 90년대 초반에 녹음한 옛 찬송가로 개정된 새 찬송가를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음원의 질적 수준 또한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과거 외국 찬송을 번역하여 부르던 시대를 넘어 한국인 작사, 작곡 128곡이 새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를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금번 사역은 한국교계가 세운 최초의 민영 방송 CBS에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라 여겨진다.

새 찬송가 녹음을 위해 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관현악 반주로 찬송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내 정상급 성악가와 합창단 그리고 교회 성가대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기독교 문화 사역이 될 예정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가의 영적인 힘을 디지털 환경에 적응된 현대인에 맞게 제작하는 금번 사역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 방송선교의 새 교두보, 캄보디아 기독교 방송국 개국

방송 콘텐츠 지원,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영화 및 프로그램 편성을 통한 해외사역 소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선교에 힘을 쏟고 있는 CBS가 사역의 영역을 확장하여 동남아의 대표적인 불교국가 캄보디아에 오는 11월 3일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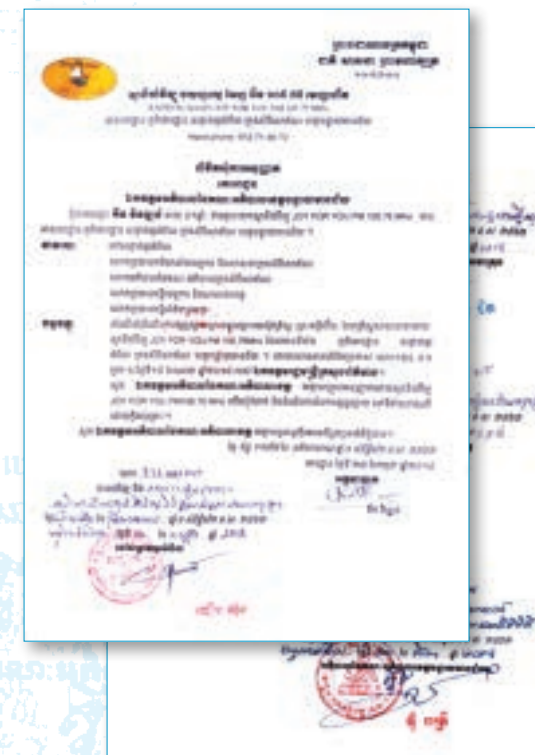
CBS 캄보디아 기독교 방송국 개국은 CBS가 제작하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기존 해외 방송 매체에 CBS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식을 넘어 기술 교육, 인적교류와 현지 방송국 운영에도 직접적으로 참여 할 예정으로 CBS 글로벌 선교 분야의 새 장을 열게 될 전망이다.

캄보디아는 문맹률이 50%에 육박하고 농촌지역은 70%를 넘어 갈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교방식으로는 복음전파가 쉽지 않다. CBS는 문맹률이 높은 이 나라에 라디오 전파를 통한 복음전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16년 12월부터 캄보디아 현지 선교사 및 현지인 교회와 더불어 가능성을 타진 하였으며 외부 기관 등을 통한 모금 또한 동시에 진행하였다.

방송국 설립 과정에서 가장 난제는 캄보디아 정부의 방송국 설립 허가 여부였다. 동남아의 대표적인 불교국가이자 독재정권인 캄보디아에서 기독교

교 방송국 허가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수많은 영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CBS의 산하 단체인 CLA(Christian Leaders Academy)총동문회(회장 오수철 장로)가 특별한 기도와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 드디어 올해 6월 주파수 허가 및 방송 허가증을 발급 받았다. 현재 방송 제작 및 송출을 위한 방송국 건물 또한 순조롭게 올라가는 중이다.

CBS의 24시간 찬양 방송 조이포유의 이름을 딴 “캄보디아 JOY FOR YOU 방송(FM105.75MHz)”은 캄보디아 북부지역이자 태국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시소폰시 전체를 커버하게 될 예정이다. 금번 캄보디아 기독교 방송국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인접국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불교 문화권 국가의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 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기독교 방송 설립 허가증〉



경남CBS

창원서머나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



경남CBS는 오는 11월 13일(화) 목회자 세미나를 연다. 창원서머나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는 송태근 목사(삼일교회)가 강사로 나서며, 미래목회의 방향과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강해설교 등을 주제로 경남지역 목회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남CBS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년 목회자 세미나를 열어 복음의 불모지 경남지역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비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CBS

대구CBS 60주년 새 사옥 건립 본격화



대구CBS가 지역교계와 새 사옥 건립의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9월 새 사옥 건축 기공 감사예배를 앞두고 8월 24일(금)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기환 목사, 대구범어교회 장영일 목사, 대

구CBS 운영이사장 윤재철 목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인선 권사 등 대구지역 교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준비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1959년 대구 땅에 한국 최초의 지역민영방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이뤄지는 새 사옥 건축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기공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합심 기도했다.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건축에 임하면 모든 일이 은혜롭게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축 경과를 보고한 감일근 본부장은 “대구CBS는 새 사옥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대구 교계의 부흥을 선도하고 정의로운 언론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다.

2019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구CBS 새 사옥 기공감사예배는 9월 6일(목) 오전 11시 대구 삼성창조경제단지 내 중앙컨벤션센터 2층에서 200여 명의 지역 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열릴 예정이다.

대전CBS

대전CBS “내포방송 개국 7주년 기념 희망콘서트”

대전CBS “내포방송 개국 7주년 기념 예배 및 희망콘서트”가 지난 7월 11일, 충남 홍성 홍성성결교회(담임목사 이춘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홍성과 예산지역에 원활한 방송을 위해 세워진 내포방송은 올해 개국 7주년을 기념해 참석자들과 1부 예배와 2부 콘서트로 개국 기쁨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CBS 이기복 운영이사장(하늘문교회)을 비롯해 홍성군 운영이사회 양정국 회장(홍성장로교회), 홍성군 기독교연합회 고용석 회장(홍주장로교회) 등 교계 지도자들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지역 성도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정상급 CCM 가수인 최인혁 전도사, 조수아와 찬양으로 선교하는 포크가수 둘다섯(이두진 안수집사)이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부산CBS

집수리 프로젝트 ‘위드하우스’의 올해 첫 번째 집 완공

부산CBS와 세정나눔재단, 러브부산운동본부가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집수리 프로젝트 ‘위드하우스’의 올해 첫 번째 집이 지난 6월 27일 완공됐다.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에 위치한 ‘위드하우스’에서 일주일간 벽지와 바닥, 전기, 방수, 싱크대 등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를 마친 이날 오후 ‘위드하우스’에서는 수혜자와 집수리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모여 완공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드렸다.

러브부산운동본부 김도림 목사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위에 세운다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라며 수혜자 가족을 축복했다. 또 “집수리 프로젝트인 ‘위드하우스’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집수리 자원봉사에 참여한 이종학 집사는 “7평의 공간에 공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들지 않아 많지 않은 재정으로도 효과적인 집수리를 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CBS와 러브부산운동본부, 세정나눔



재단이 함께하는 ‘위드하우스’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공동주거지 마련, 집수리 등의 사랑 실천운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11월부터 시작된 집수리 프로젝트를 통해 ‘위드하우스’로 이름 붙여진 집은 40곳에 이른다.

울산CBS

울산CBS 헌신예배 및 JOY4U 콘서트 개최



울산CBS는 9월 9일 태화교회(양성태 목사, 울산CBS운영이사장)와 강남교회(정병원 목사, 울산CBS운영이사)에서 울산CBS 헌신예배를 가졌다.

태화교회는 JOY4U진행자 송정미 사모를 초청하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세상으로 보내는 <다음세대 파송예배>와 다음세대들에게 진

리를 강화하고 이단을 경계하는 <신천지 동성애 이슬람 OUT>예배의 시간을 가졌다.

강남교회는 JOY4U콘서트로 주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의 시간과 CBS방송선교사로 동참하여 울산복음화를 이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JOY4U콘서트는 10월 21일, 1908년 한 세기를 넘어 110년의 역사를 가진 울산수정교회(여두기 목사)에서 드려질 예정이다.

전남CBS

전남CBS의 혼성 합창단, 교회에서 찬양하다

전남CBS 직원들이 임시 합창단을 구성해 교회에서 찬양을 드렸다. 7월 22일 주일, 여수감리교회 대예배 시간에 특별찬양 순서로 나선 것.

여수제일감리교회(문상하 목사)는 교회설립 34주년을 맞아 김의양 본부장에게 부탁 하나를 해 왔다.

“이날 기념예배 때 전남CBS 방송 직원들이 특송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방송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CBS 직원들의 찬양은 은혜롭겠다는 생각도 들고, CBS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성도들 역시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본부장은 결심을 하고 직원 합창단을 만들어 연습에 들어갔다. ‘내가 무슨 합창을...’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기도 했지만 함께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합창에 동참했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예배가 끝나면 잠깐의 짬을 내어 연습을 했다. 이리기를 한 달 반. 불편했던 화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의 하모니로 변하기 시작했다.

교회설립 기념예배 특송 무대에 선 16명의 직원들. 전문 합창단원은 아니지만 CBS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성원해 주신 교회성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찬양을 했다.



“주 보혈, 날 정결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찬양이 끝나고 다소 흥분된 표정으로 인사를 할 때 그 어떤 찬양 무대보다 더 큰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도들을 찾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들려주는 CBS직원, 이 역시 방송선교 영역을 넓히는 또다른 역할이 아니겠는가?

한 직원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 이번 참에 전남CBS 직원합창단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2018년 11월

세계문화유산등재기념

일본 순교지 순례

2018년 11월 26일(월) ~ 30일(금)

부산-시모노세키-오무라-사세보-히라도-나가사키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은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동방의 산티아고 - 오무라 침묵의 순례길



나카에노시마



몸체무덤



운젠 지옥



하라 성터



처자 이별 눈물바위



구주쿠시마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서 믿음을 지킨 나가사키 순교지